

난민과 특정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령

법적 책임 부인: 본 공식 성명서는 The Legal Aid Society의 이민법 담당 부서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성명서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 재판에 대하여 난민과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및 예멘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3월 6일 행정 명령의 시행을 중단한 명령을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모두 여행금지령의 시행에 대한 1차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수주 내로 추가적인 지침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몇몇 연방법원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여행금지령의 현황은? (2017년 6월 30일자)

- 여행금지령은 명명된 6개국의 국민 중 2017년 6월 26일 당시에 미국 외에 체류 중인 자, 2017년 1월 27일 미국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오후 5시 당시에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자, 그리고 2017년 6월 29일 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8시 당시에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여행금지령은 해당 6개국 국민 중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지닌 자, 또는 금지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면제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과의 관계란 가까운 가족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포함 관계: 부모, 시부모, 배우자, 약혼자, 어린 자녀, 성인 자녀, 사위, 며느리, 친/이복/양 형제자매.
 - 제외 관계: 조부모, 손자 손녀, 이(고)모, 삼촌, 조카 딸, 조카, 사촌,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먼” 친척.
 - 하와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제외에 대한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에 “합류”하는 난민 배우자 및 자녀는 선의의 가족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난민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체**와의 관계는 반드시 공식적이고 문서화되며, 보통의 절차를 통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 학생 비자 및 고용 기반 비자는 신청자가 보통의 절차를 통해 형성한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특정 교육 또는 사업 단체와 관련되므로, 이 종류의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6개국 출신 개인의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여행금지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 난민 재정착 단체와 난민의 관계는 현재 여행금지령을 위한 미국 내 단체와의 선의의 관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곧 추가적인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의 선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명명된 6개국 출신으로 관광 또는 방문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여행금지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주권자
 - 사전 가석방 신청을 포함하여 명령 발효일 (2017년 6월 26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으로 입국 또는 가석방된 자
 - 지정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
 - 특정 외교 비자 취득인
 - 명령 발효일 당시에 이미 인정된 망명인 및 난민
 -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제거 또는 보호의 원천을 부여받은 자
-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의 경우, **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입국 거부로 인해 지나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 이 문맥상의 어려움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 입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우
 - 입국이 공익을 위한 경우

여행금지령의 실제 내용은?

여행에 관한 다른 명령들 가운데 2016년 3월 6일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합니다:

- 명령 발효일(2017년 6월 26일)에 미국 외에 체류 중이고, 2017년 1월 27일 미국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오후 5시 당시에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명령 발효일(2017년 6월 29일 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8시 당시에)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모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및 예멘 국민에 대한 90일간의 입국 금지
 - 이라크는 금지대상 목록에서 제외
- 영주권자, 사전 가석방 신청을 포함하여 명령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으로 입국 또는 가석방된 자, 지정국가 외 국가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 특정 외교 비자 취득인,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제거 또는 보호의 원천을 부여받은 망명인 및 난민에 대한 금지령 비적용
-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여행금지령 면제 허용
- 여행금지 대신 철저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여행금지령 비적용
- 모든 난민에 대한 최소 120간의 입국 중단
 - 명령 발효일, 즉, 2017년 6월 29일 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8시 이전에 공식적으로 승인이 계획된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음
 - 사례별로 난민금지령에 대한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110,000명 목표에서 회계연도 2017년에 50,000명으로 난민 입국 감소
- 생체인식 출입 시스템의 신속한 완료
-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중단 및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참석 요구
 - 방문자 비자를 취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대한 개인의 지원이 얼마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를 떠나 테러 관련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모든 면제의 중단 고려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이민 상담 전화 844-955-3425 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